

특집 | 일본·일본인과 3.1운동

3.1운동 전후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일본 육군 내 논의 | 박완

투고일자: 2019. 6. 3 | 심사완료일자: 2019. 6. 19 | 게재확정일자: 2019. 6. 21

1914~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 및 1919년의 3.1운동의 발발은 일본의 제국 지배 질서를 동요시켰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기존의 제국 지배 질서의 재편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는 육군도 마찬가지였다.

그중 아카시 모토지로, 이구치 쇼고, 우쓰노미야 다로 등 조선헌병대 혹은 조선군에서 활동한 이들은 영국·프랑스 등 구미 제국의 식민지 군대의 선례를 중시하였고, 또 병합 직후부터 식민지 조선인의 ‘동화’ 및 그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낙관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동화’를 촉진한다는 조선 지배 정책의 측면에서 조선인에게 육사의 문호를 개방하거나 조선인 지원병 부대를 편성하는 등 군이 앞장서서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조선 주둔 병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3.1운동의 충격 속에서 더욱 절실했다.

반면 주로 육군 중앙에서 활동한 다나카 기이치는 러일전쟁 이후 대러시아 작전·군비라는 당면의 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예산과 국내 정치적 환경이라는 정치·경제·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하였다. 그에게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은 조선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동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실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에 불과했으며, 또 조선인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기 위해 조선군을 증강한다는 발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3.1운동의 발발은 조선인의 ‘동화’가 능력에 대한 기존의 낙관적 인식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그는 조선인 교로의 재생산, 조선인 부대 편성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선군 증강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조선군과 육군 중앙의 대립은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제1차 세계대전, 3.1 운동, 일본 육군, 조선군, 우쓰노미야 다로, 다나카 기이치

1920년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식민정책론: 식민지 본위주의와 자치주의 | 박양신

투고일자: 2019. 5. 19 | 심사완료일자: 2019. 6. 9 | 게재확정일자: 2019. 7.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사조의 변화와, 민족자결주의에 자극받아 발생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정책학은 종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우선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관련하여, 식민국 측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던 것이 식민지 측의 이익을 고려한 ‘식민지 본위’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였다. 그와 더불어 종전에 제각각이었던 식민지 통치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1920년대가 되면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데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식민정책학의 원론적인 입장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식민정책론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조선과 타이완에 대해 ‘조선 본위’, ‘타이완 본위’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

조하는 한편, 입을 모아 동화주의를 멈추고 자치주의를 통치 방침으로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자연히 두 식민지의 자치제 확대로 향해졌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허용해야 할 자치의 정도를 둘러싸고는 편차를 보였다. 또한 대의기관과 관련해서는 자치주의자들은 모두 식민지 의회의 설립이 제국의회에 식민지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방식보다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식민지 의회 즉 조선의회, 타이완의회의 설립을 둘러싸고는 그 시기와 지역 타당성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주제어: 식민정책학, 동화주의, 자치주의, 아마모토 미오노, 이즈미 아키라, 야나이하라 다다오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바라본 3.1운동: ‘재조일본인’의 ‘조선소요’(朝鮮騷擾) 인식

| 이동훈

투고일자: 2019. 6. 8 | 심사완료일자: 2019. 6. 20 | 게재확정일자: 2019. 7. 8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에 형성된 일본인 식민자 사회, 이른바 ‘재조일본인’ 사회가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찰했다. 먼저 3.1운동을 발생 초기와 진정 국면 후 ‘문화통치’ 시기로 구분하고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재조일본인 사회에 공유된 의식 체계를 ‘식민자 의식’으로 정의하고 그 성격을 다루었다.

3.1운동 발생 초기 재조일본인 사회는 일부의 ‘폭도’가 일으킨 ‘만세소동’으로 폄하하면서 조소 어린 시선으로 운동을 바라보았다. 국제 정세에 무지한 조선인들이 이상에 불과한 민족자결주의를 맹신한 탓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무단통치’ 시기에 행해진 억압 정책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악행을 원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외부 배후설을 제기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정치’로의 전환이라는 뜻밖의 정치적 수확을 경험하면서 일본인 사회에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무단정치’ 시기에 행해진 억압적인 통치와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횡포를 일부분 인정하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들이 반드시 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3.1운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내지’의 일본인과 재조일본인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재조일본인의 ‘식민자의식’은 조선인들에 대한 타자 의식을 기초로 형성된 것으로 ‘내지’의 일본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자의식’은 그 태생부터 외부 사회 즉 조선인 사회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배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재조일본인들은 3.1운동 후의 식민지 통치와 관련하여 조선인 사회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이다.

주제어: 3.1운동, 재조일본인, 식민자, 식민자의식, 제국의식, 무단통치, 문화정치

고쿠민신문(國民新聞)에 나타난 3.1운동 | 박은영

투고일자: 2019. 5. 22 | 심사완료일자: 2019. 6. 9 | 게재확정일자: 2019. 7. 3

3.1운동은 오랫동안 조선에 무관심했던 일본 언론계의 관심을 일거에 환기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와 군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사태의 추이에 끌려갔고, 조선의 현실을 충분히 전달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표제를 단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매체적 특성에 주목하고, 고쿠민신문에 게재된 3.1운동 관련 기사를 검토하여 3.1운동 당시 고쿠민신문이라는 특정한 매체가 어떠한 조선 이미지를 형성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쿠민신문이 친정부적 언론기관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

적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이 3.1운동 보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신문의 특징과 정체성을 이해함에서도 유효한 시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고쿠민신문이 3.1운동 발발 당시 이 운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운동이 격화되자 정부의 식민통치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제국 일본의 위기를 환기하는 한편, 식민지 조선의 운영에 있어 조선인 조력자들을 주목하고, ‘동화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등의 방침을 일관되게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3.1운동, 언론, 고쿠민신문, 도쿠토미 소호, 제국의 위기, 오타니 고조이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 일본문학이 기록한 3.1운동과 조선인 | 곽형덕

투고일자: 2019. 6. 11 | 심사완료일자: 2019. 6. 21 | 게재확정일자: 2019. 7. 11

이 글에서는 일본문학이 3.1운동을 어떻게 기록/기억했는지를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에 초점을 맞춰서 재조명했다. 일본문학이 기록한 3.1운동을 다시 읽는 작업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일본인의 의식과 내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집단 기억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는 민족 기억의 저수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성찰적 타자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작품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불령선인」과 나카지마 아쓰시의 「순사가 있는 풍경: 1923년의 스케치 하나」, 그리고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속」이다. 세 작가의 작품은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까지 일본인의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을 담고 있다. 다만 나카니시는 일본인 주인공 우스이 에이사쿠를 등장시켜 이를 직접적으로, 나카지마는 조선인 순사와 ‘매음부’를 등장시켜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속」은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사회주의자의 비극을 연결시킨 수작이다. 살육의 기억과 민족의 죄를 응시하는 것은 이들이 남긴 문학의 핵심이다.

주제어: 3.1운동, 일본문학, 피포위공포, 나카니시 이노스케, 나카지마 아쓰시, 히라바야시 다이코

연구논단

이상한 병치(併置): 막시밀리안 콜베와 나가사키 피폭자의 신성화 | 임지현

투고일자: 2019. 1. 28 | 심사완료일자: 2019. 6. 14 | 게재확정일자: 2019. 7. 3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기억 문화에서 발견되는 콜베 신부 숭배 현상을 국경을 넘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관점에서 추적한다. 아우슈비츠에서 순교한 폴란드 가톨릭 신부 콜베가 1930년대에 일본 가톨릭 순교의 상징인 나가사키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우연이지만 우연 이상이다. 전후 일본의 기억 문화에서 아우슈비츠의 폴란드 순교 성인과 나가사키의 가톨릭 원폭 희생자들은 절묘하게 얹혀 있다. 이 논문은 나가사키의 가톨릭 원폭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기억의 신성화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오늘날 일본의 콜베 신부 숭배 현상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폴란드와 일본을 잇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 공간에서 전후 일본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종교적 아우라가 더해지고 신성화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글은 홀로코스트와 원폭을 연결하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이 민족주의적으로 전유되는 방식을 추적함으로써,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긴장을 낳고 얹혀 나가는 지구적 기억 공간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드러낼 것이다.

주제어: 트랜스내셔널 기억, 콜베 신부, 나가이 다카시, 홀로코스트, 반유대주의, 아우슈비츠,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전후(戰後)를 사는 ‘오모니’: 재일한인 모성 표상의 계보학 | 정호석

투고일자: 2019. 5. 24 | 심사완료일자: 2019. 6. 12 | 게재확정일자: 2019. 7. 1

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오모니’(オモニ)라는 표현이 전유되어 온 양상을 밝힘으로써 재일한인 여성상이 갖는 역사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오모니’는 일본 식민지시기 재조일본인의 가정 에 고용된 조선인 여성 가사사용인에 대한 호칭이었으나 전후, 한인 2세대 및 일본인들에 의해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 재해석되는 가운데 재일 한인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표상으로 자리잡았다.

전후 ‘오모니’가 대중적인 주목을 받은 첫 계기는 한인 2세들의 문제를 극적으로 표출한 ‘김희로 사건’으로서, 김희로의 어머니는 지식인 및 시민의 담론적 실천 속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민족문제’를 제기하는 ‘조선인’, 혹은 억압적 국가권력과 길항하는 ‘노동하는 민중’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또한 일본인 작가들의 논픽션, 에세이 작품에서, ‘오모니’는 1세 여성들 및 그들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한인 후속 세대, 그리고 동시대 일본인들이 함께 직조해내는 전후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을 촉발하는 동시대인, 혹은 전후의 국민 문화에 창조적인 다양성을 더함으로써 일본인 및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타자’로 해석되었다. 한편 ‘오모니’들의 문해활동은 고도경제성장 이면의 소수자들의 문제로 여겨지며 다년간의 시민 운동 속에서 지역사회의 역동적인 현실에 뿌리내려왔으며, 근년 들어서는 주류 대중 문화 속에서 유통,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인 사회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담론적 실천을 자극하며 그 의미를 확장해 온 ‘오모니’에 대한 본 논문의 계보학적 고찰은 문화적 탈식민화 과정에서 모성이 가지는 해방적 잠재력 및 모성 표상의 대중적 소비가 갖는 양의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기한다.

주제어: 오모니, 재일한인, 모성, 젠더화된 표상, 담론적 전유

뮤지엄 이후의 뮤지엄: 일본 만화뮤지엄의 사례와 전망 | 김효진

투고일자: 2019. 6. 22 | 심사완료일자: 2019. 7. 1 | 게재확정일자: 2019. 7. 2

21세기를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1) 파퓰러 문화의 뮤지엄화와 2) 뮤지엄(museum)의 파퓰러 문화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중문화의 뮤지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일본의 만화뮤지엄에 주목하여 일본 만화문화의 특성 및 대중매체로서 만화가 갖는 특성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포스트-뮤지엄으로서 만화뮤지엄이 지닌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파퓰러 문화의 뮤지엄화, 그중에서도 만화는 수목형 지식체계를 대변하는 기존의 뮤지엄이 부딪힌 한계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뮤지엄이 리즘적 조직과 재현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둘째, 만화가 뮤지엄에 수집, 보존, 이용되기 시작한 현 상황은 실제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바로 이 문제와 모순점을 통해 일본사회에서 만화와 만화문화가 갖는 의미와 다양성의 확장, 이를 통한 만화연구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만화의 방대함과 폭넓음으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만화뮤지엄을 넘어서는 수준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보존, 이용이 가능한 국가 주도의 뮤지엄과 아카이빙이 필요한 동시에, 시민들이 대중오락매체로서 만화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만화뮤지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수목형 뮤지엄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원화된 지식과 문화의 공유, 즉 리즘형 뮤지엄의 가능성이 탐색되는 공간으로서 일본의 만화뮤지엄은 그 가치가 높다 하겠다.

주제어: 대중문화, 만가뮤지엄, 포스트-뮤지엄, 리즘, 일본의 만가문화, 만화